

“몰랐다” 해명 거짓 논란... 민주당 감찰 “면피성” 도마

전북참여연대, 민주당 강력 비판
 참석자 증언·사진에 신뢰 논란
 이원택 재감찰·경선 무효 요구
 “정청래 전북도민에 사과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주류,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 후보에 대한 즉각 재감찰과 경선 무효화를 재차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이원택후보는 식사비 결제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참석자 증언과 사진 등을 통해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운을 뗀 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몰랐다, 중간에 자리를 뒀다는 해명은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는 처사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단기간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따른 면피성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정청래 대표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동일한 의혹에 상반된 조치를 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내부 권력관계에 따라 기준이 달라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참여자치는 민주당에 부실 감찰 인정 및 즉각적인 재감찰 착수, 의혹 해소될 때까지 이 후보 자격 정지, 경선 과정 재검토, 경선 무효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전북지역 당원과 유권자를 무시한 이번 행태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변명과 회피가 아니라 사실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로 전북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식비 대납 의혹 이원택 재감찰해야” 민주당 전북도지사 안호영 경선후보와 지지자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이원택 후보와 관련된 식비 대납 사건에 대한 재윤리감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북타임스>

안호영 “이원택 재감찰하라” 무기한 단식 돌입

이후보 식비 대납 의혹 재조사 촉구
 지도부 14일 재논의 결과 발표
 지지자 시위 확산 등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간담회 식비 대납사건 등과 관련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재 윤리 감찰을 요구하면서 들어간 단식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등 전북지사 후보 경선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안 의원의 단식 농성에 이어 지지자들의 재 감찰 요구 시위까지 확대되자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 논의하고 결과를 14일 발표하기로 했다.

지사의 건은 현장 조사를 거쳐 처리됐지만 이원택 후보에 대한 현장 조사도 없이 바로 (혐의없음)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광영 지사의 현금살포 동영상 등이 공개되자, 곧바로 제명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한 식비를 이의원을 지지 해온 김슬지 도의원이 식비를 도의회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납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원 무혐의’, ‘김슬지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공정한 선거관리 및

평서 차원에서 이 의원의 식비 대납사건을 재 감찰하고, 도지사 경선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은 이같은 안 의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경선을 그대로 진행해 이 의원을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당의 결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한다며 재 감찰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지난 12일에는 안 의원 지지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공정한 경선, 재 윤리감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윤곽’...본경선 결과 발표

5곳 확정...전주·군산 등 9곳 결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본경선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관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합산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선결과 김제시장 정성주 후보자, 무주군수 황인홍 후보자, 장수군수 최훈식 후보자, 순창군수 최영일 후보자, 고창군수 심덕섭 후보자가 최종 공천권을

시·군	최종 및 결선 후보	비고
전주	우범기, 조지훈	
군산	김영일, 김재준	현 강임준 시장 탈락
익산	조용식, 최정호	
정읍	이상길, 이학수	
김제	정성주	현 시장 재임
남원	양종모, 이정린	
완주	유희태, 이돈승	
진안	이우규, 전춘성	
무주	황인홍	현 군수 재임
장수	최훈식	현 군수 재임
임실	김병이, 한득수	
순창	최영일	현 군수 재임
고창	심덕섭	현 군수 재임
부안	권익현, 김정기	

민주당 전북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 1차 경선 결과 <전북타임스>

거머쥐었다. 특히 김제시장 정성주 후보는 당초 4인 후보가 경쟁에 나서 결선이 예상됐지만 과반이상 지지율 득표율 얻어 본경선에서 최종 확정됐다.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등 9개 선거구는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가린다.

세부적(가나다순)으로 전주시장 결선은 우범기·조지훈 후보가, 군산시장

은 김영일·김재준 후보가, 익산시장은 조용식·최정호 후보가, 정읍시장은 이상길·이학수 후보가, 남원시장은 양종모·이정린 후보가, 완주군수는 유희태·이돈승 후보가, 진안군수는 이우규·전춘성 후보가, 임실군수는 김병이·한득수 후보가, 부안군수는 권익현·김정기 후보 등이다. 이들 선거구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맞붙게 된다. 경선 방식은 본경선과 같다. /장정철 기자

중앙선관위원장 전북 선거 현장 점검 14~15일 전북·군산 선관위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장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북 지역을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점 추진정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요 선거업무 추진 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노태약 중앙선관위원장은 14일 전북선관위, 15일 군산선관위를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 ▲선거



전북도, 추경 3118억 확보...고유가 대응 집중

피해지원금 2471억 최대 규모 반영 소득하위 70% 141만명 지원

로봇·스타트업 미래산업 투자 확대 복지·에너지 지원...민생 안정기대

전북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13개 사업, 3,118억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부처 예산안 배분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공모사업 대응에 따라 최종확보액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26조 2,000억 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전북은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 등에 걸쳐 예산을 끌어냈다.

확보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국비 2,471억 원이 배정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 약 141만 8,000명이 1인당 10~60만 원을 지원받는다. 1차로 4월 27일부터 차상위·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2차로 이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도민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도민들을 도울 방침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성장펀드(국비 600억 원, 총사업비 1,000억 원)가 추경에 포함됐다.

당초 공모 선정 기준이 특정 연구 거점 대학 소재지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도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함께 기획처, 국회 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추가 반영을 이끌어냈다. 확보된 펀드는 도내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정부안에 없던 'K-로봇 피지컬AI 실증 공유센터 구축 전략수립 기획 용역비(국비 5억 원)'가 국회 심의 단계에

서 정동영 의원의 공조로 증액 반영됐다.

이는 국산 로보 부품 실증 환경 구축과 양산 지원 등 총사업비 2,18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을 따낸 것이다. 이로써 전북이 로보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됐다.

에너지 관련 지원도 함께 반영됐다. 에너지 바우처(10억 원)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며,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8억 5,000만 원)은 고유가 부담을 안고 있는 화물 운송업계를 겨냥한 조치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7억 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연안화물선 유류비·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4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안정 지원(5억 4,000만 원)도 편성돼 농어업 현장의 비용 부담 완화에 도 대응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돌봄 보조 인력지원(4억 7,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차량 유류비 지원(1억 8,000만 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3,000만 원), 먹거리 기본보장 운영지원(6,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돌봄·의료·식품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별 집행 계획을 즉시 점검하고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북만의 탄탄한 논리로 소중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번 성과는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맞물려 이뤄낸 공조 결실이며, 확보된 모든 예산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신속 집행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도민주권 참여 선대위'로 승부수

도민 참여 기반 선거조직 모집 정책 수립·의사결정 직접 참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3일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정부'를 완성하기 위해 도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는 '도민주권참여 선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며, 성과를 체감하는 '도민주권정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며 "선거 조직 단계부터 도민 참여를 제도화해, 향후 도정 운영까지 이어지도록 '도민주권참여 선대위'를 구성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의 주체를 후보가 아닌 도민으로 규정하며 기존 선거 방식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선거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활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민주권정부'의 예비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도민주권참여 선대위'를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정책 제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도민주권참여 선대위'는 특히, 선거 이후에도 도정 운영의 기반으로 일회성 기구에 그치지 않고, 도정 운영의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이 의원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선거를 위해 동원되는 조직이 아니라, 도민이 지속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선 경쟁자들과의 통합 역시 '도민주권정부' 완성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김관영, 안호영, 정현을 후보를 언급하며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하나로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피력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다문화 "정착부터 자립까지" 207억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별 13개 정책 추진 가족센터 중심 통합서비스 확대 자녀 교육·이중언어 지원 강화 언니 멘토단·축제로 통합 도모

전북도는 도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사회통합을 위해 2026년 총 207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초기 적응, 자립 기반 형성, 자녀 성장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127억 원을 투입해 도내 14개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상담,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통·번역 서비스(12억 원), 방문교육 서비스(18억 원) 등을 통해 초기 정착과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자녀 지원 분야에는 언어발달 지원(10억 원), 이중언어 학습지원(9억 원) 등을 투입해 학습 기반을 강화하고, 기초학습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또 글로벌마을학당 운영(16억 원), 다



지난 2024년 12월 전북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우수사례 발표회 <사진=전북도>

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2억 원), 고향나들이 지원(2억 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 등도 자체사업을 병행 추진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한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통·번역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등 국비 연계 사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365 언니 멘토단'은 멘토 60명과 멘티 120명이 참여해 생활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 국적취득 준비 등을 지원 하는 대표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지역 사회 정착을 돕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하반기에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해 도민과 다문화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1만3천여 명, 다문화가족 자녀는 1만4천여 명, 전체 가구원은 4만6천여 명에 이른다. 도는 이들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 인적 자원으로 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 정책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다"며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들이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26-446호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세목(변경)고시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따라 지방도 726호선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세목(변경) 고시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장수군수

붙임, 수송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단위: m²)

연번	토지 소재지			면적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증감	
1	백운면 백운리 3호지	신1-7	필	8,033,048	312	235	△77
2	"	신1-8	필	-	87	87	0
3	"	신1-11	필	150,808	17,297	17,297	0
4	장수읍 갈매리 1호지	220-1	필	470	71	15	△56
5	"	220-2	필	-	56	56	0
6	"	221-2	필	2,499	2,238	2,232	14
7	"	221-1	필	592	344	345	2
8	"	221-1	필	3,504	1,327.0	22	△1,205
9	"	221-2	필	-	1,300	1,300	0
10	"	221-1	필	1,650	576	586	10
11	"	227-1	필	281	192	187	△5
12	"	228-1	필	1,484	797	706	△110
13	"	230-1	필	2,050	12	-	△2,038
14	"	230-2	필	10,287	-	1,022	1,022
15	"	230-4	필	-	1,013	1,013	0
16	"	231-1	필	264	9	8	△1
17	"	231-1	필	317	206	200	△6
18	"	231-1	필	25	-	25	0
19	"	231-2	필	699	44	18	△236
20	"	231-1	필	1,825	340	341	1
21	"	231-3	필	7	5	5	0
22	"	231-5	필	10	10	10	0
23	"	231-6	필	29	29	29	0
24	"	231-7	필	261	157	150	△7
25	"	231-2	필	1,632	51	51	0
26	"	231-3	필	66	66	42	△24
27	"	231-4	필	187	187	187	0
28	"	231-5	필	1,608	1,389	1,389	0
29	"	231-2	필	189	99	104	5
30	"	231-3	필	248	248	248	0
31	"	231-3	필	66	66	66	0
32	"	231-3	필	69	69	69	0
33	"	231-3	필	132	132	132	0
34	"	231-1	필	96	63	64	1
35	"	231-5	필	136	119	122	3
36	"	231-6	필	126	30	29	△1
37	"	231-4	필	208	191	192	1
38	"	402-2	필	1,944	21	22	1

1. 사업명: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지방도 726호선)
2. 위치: 전라북도 백운면 노촌리 신1-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288-4
3. 사업기간: 2024.11.08. ~ 2030.12.31.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주시 완산구 호서로 225)
5. 변경 사유: 토지분할 측량 등에 따른 면적변경 및 지번 변경
6. 수송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7.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4월 30일(14일간, 가산일 제외) 나. 열람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교통청도서관(장수군청 건물로동자) 8.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4월 30일(14일간, 가산일 제외) 나.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9. 기타: 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교통청도서관(031-200-3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김제·고창 청년마을 선정...2년 연속 '전국 최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서 도내 2개 청년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총 10개 단체를 지원하는 이번 공모에 전국 141개 단체가 신청했으며, 전북은 작년 이어 올해도 2개 단체가 선정되며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곳은 ▲김제시 부량면의 FLD 스튜디오(대표 최별, 컨소시엄 오후협동조합)와 ▲고창군 대신면의 작은불연구소(대표 이지연, 컨소시엄 두루거리장작소·키후위키)이다.

두 단체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각각 총 6억 원(매년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일자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다.

김제 FLD스튜디오는 마을방송국형 청년마을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온라인 관계기구 확

연도	단체	마을명	주요 내용
2021	완주	다운타운	거점공간(베이스캠프)과 매개공간(중개사무소)을 활용한 정보공유, 지역탐색, 창업지원 등 지원
2022	군산	술익는 마을	지역의 양조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파생산업 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창의마을 조성
2023	익산	지구장이 마을	백제 공예기술을 예고기술로 재해석한 친환경 청년 마을공동체 형성
2025	무주	산타지마을	백패킹·트레킹·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청년 정착 및 창업이 가능한 글로벌 산골아웃도어
	장수	트레일 빌리지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체류형 관광, 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트레일 문화 정착

행안부 청년 마을 선정 전북 현황 <사진=전북도>

대, 체류형 관광을 추진한다. 주민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과 논바다 캠핑 영상제 등을 통해 지역과 연결된 새로운 청년활동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고창 작은불연구소는 고창서점마을과 세계유산에 연계한 청년마을을 조성해 로컬서점 창업, 문화예술 콘텐츠, 체류형 여행·관광을 결합한 모델을 추진한다. 고창의 역사·생태 자원을 활용해 청년에게는 일거리와 창업 기회를, 지역에

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오후협동조합의 경우 '24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으로 지역자원 활용 역량과 청년 유입 기반을 확보한 단체이다.

임철원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청년의 창의성을 결합한 다양한 청년마을 모델을 확산해 청년이 머무르고 정착하는 지역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주 탄소국가산단 유치업종에 드론·방산 추가

탄소국가산단 유치 업종 203개로 입주 범위 확대 탄소산단 분양 및 활성화 속도 붙을 것으로 전망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계획 변경 승인 내용에 시 주력 산업인 드론·방산 분야가 산단 유치 가능 업종에 최종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인공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등 10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로써 탄소산단 입주 가능 업종은 기존 193개에서 총 203개로 확대됐다.

특히 시 주력 산업인 드론·방산 분야 관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65만 6000㎡(약 20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산업시설용

지 분양 및 입주기업 투자유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국가산단은 도심 내 위치에 정주여건이 우수한 뿐만 아니라, 전주IC와 인접해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 인근의 연구·혁신기관과 연계가 가능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유리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시는 본격적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두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50억 원에서 80

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탄소국가산단에 분양가의 10%의 입지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입주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선택지가 넓어져 산단 분양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 올해의 책' 100일 필사 참가자 모집

28일까지 총 50명 선착순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

책의 도시 전주시가 올해도 시민들과 함께 '전주 올해의 책'을 읽고 자유롭게 필사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14일부터 '2026 전주 올해의 책'을 읽고 기록하는 '100일 필사' 프로그램에 참가할 시민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00일 필사'는 선정 도서 속 감동적인 문구나 책 속의 장면 등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일상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해마다 추진되고 있다.

모집 인원은 일반시민 총 50명으로, '전주독서대전' SNS 구독 인증

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도서 부문별로 △어린이(그림) 5명 △어린이(글) 5명 △청소년 15명 △일반 25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jbook.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사 대상 도서는 2026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어린이(그림) 부문 황금 고라니(김민우 글·그림, 노란상상) △어린이(글) 부문 거의 다 왔어(윤일호 글·정지윤 그림, 내일올려는책) △청소년 부문 높지의 렌(최희희 저, 장비) △일반 부문 노 피플 존(정이현 저, 문학동네) 총 4권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에너지 위기 극복 전방위 절감 대책 추진

출근버스 투입·대중교통 활성화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

전주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에 발맞춰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인 실천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입에 따른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거주 집중도가 높음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을



<사진=전주시>

대상으로 출근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시는 매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해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선두로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대중교통 이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해 공직사회 전반에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

를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주 4.5일 근무제 운영을 통해 근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육아 공무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시간 사용을 활성화하고,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한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공직사회가 앞장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정부에 지방대도시 '뚝'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총 26건, 165억 규모 지원 요청

전주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도시로서 실질적인 광역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1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자부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교부세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서

인근 지역 주민의 의료·교육·문화·복지 수요를 광역시 수준으로 감당하고 있으나,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생활 인구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수요 대비 교부세 배분이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에 윤 부시장은 이날 행안부에 생활인구·유동인구 등 실질적 행정수요 지표와 '5극 3특' 정책 추진 거점도시로서의 지역 특수성을 보충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윤 부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날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총 26건, 165억 원 규모로, 윤 부시장은 이들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직결된 현안임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보충교부세 산정 기준인 자체 노력도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세입 관리와 세출 효율화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

는 등 보충교부세 확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주시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거점도시로서 광역적 행정 서비스 수요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생활인구 등 실질 지표의 교부세 산정 반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시, '2026년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개최

봄바람 가르며 자전거 타고 '쌩쌩' 오는 25일 평화의전당 야외광장 시민참여 자전거 행진 등 운영

전주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전당 야외광장(완산구 바람뿜는길 120)에서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자전거의 날 기념식 △시민 참여 자전거 행진 △자전거 발전기를 활용한 생과일 주스, 비눗방울 만들기 체험 △스피닝 자전거 체험 △자전거 여권 사업 홍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자전거 행진은 평화의전당에서 출발해 바람뿜는길-원색명화마을-정여



립 공원을 지나 전주전 자전거길로 돌아오는 약 10km 구간을 시민들이 함께 봄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게 된다.

또한 개인 자전거가 없는 시민도 누구

나 전주시 공영자전거 '꽃심이'(1인용, 2인용, 아동용)를 무료로 대여해서 행진에 참여할 수 있다.

자전거 행진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063-281-2568)로 신청하면 된다. 또,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자전거 행진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도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스피닝 자전거'와 자전거 발전기를 활용한 '생과일 주스 만들기', '비눗방울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장에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운영될 예정이어서 본인의 자전거를 가지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무료로 체인과 브레이크 와이

어를 시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자전거 관광으로 연계하여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전거 여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자전거 여권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장 내 자전거 홍보부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자전거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친근하게 자전거를 경험해 보고,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을 기대한다"면서 "자전거는 탄소중립 시대의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시민의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금암고 일원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가구 모집

13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
지원 대상 50가구 목표로 추진

전주시는 13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4주 동안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 중인 앞금암 대상 거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모래내2길 14-1 일원으로,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사업계획상 총 126가구나. 시는 올해 이 중 총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내용은 주택 외부(외벽, 담장, 대문 등)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시에서 총공사비의 90%(호당 최대 949

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10%(최대 105만 원)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부담 없이 전액(최대 1054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공사가격 6억 원 이상 △주거급여 수혜자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모집 기간 금암동 현장민원실(덕진구 거북바우로 50)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진흥원, 첨단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모

컨설팅 등 총 6000만원 규모 지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진흥원)은 인공지능(AI)과 가상융합기술(XR)을 전주 고유의 문화·역사 자산과 결합하는 '지역특화 첨단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의 문화·역사 등 고유 자산을 활용한 AI·XR 융복합 콘텐츠 및 서비스 발굴을 통해 전주 특진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기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혁신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혁신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MICE 복합단지)'에 조성되는 핵심 거점시설인 'G-Town'과 연계해 신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관련 기업 유입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

한 마중물 사업으로 손꼽힌다.

지원 규모는 총 6000만 원으로, 진흥원은 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선정 기업에는 △콘텐츠 개발 및 제작·상용화 자금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전북 가상융합 산업혁신센터(옛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제작 시설 및 장비 인프라 등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전주 시 소재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큐베이팅' 분야 1개사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작·상용화' 분야 2개사이다.

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향후 G-Town을 중심으로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기반 창의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업이 특진 권역 지역 상권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년 창업의 든든한 지원군 된다!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8팀 선발 13일 오리엔테이션 실시 자금·교육·컨설팅 전방위 지원

전주시가 청년 창업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기로 했다.

시는 13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8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전주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소규모점포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과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발된 8개 점포는 로컬 디저트와 친환경 생활한복,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으며, 시는 전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참신한 청년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점포를 우선 선발했다.

시는 앞으로 참여한 청년 창업자들이

대상으로 단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예비 및 초기 창업자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과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실전 창업 교육은 △전주 로컬 상권 및 수익모델 설계 △상권 분석 및 리스크관리 △점포 브랜딩 및 마케팅 등으로 구성되며, 점포별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 지원된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에게는 오는 5월부터 내년까지 최대

1500만 원의 사업과 자금도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점포 임차료 최대 500만 원(월 30만 원 한도) △인테리어비 최대 200만 원 △재료비 최대 500만 원 △홍보·마케팅비 최대 300만 원 등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기회와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국 유일 '전북 ON' 프로젝트 가동

700명 규모 전문가 1:1 밀착 지원... 최대 500만원 인센티브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을 망설이던 '사이 창업가'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조센터)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규모 창업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전북을 선택하면, 당신의 아이디어는 현실이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에서 오직 전북만이 제공하는 특별 패키지인 '전북 ON'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기부의 파격적인 비수도권 배정(70%) 기조에 발맞추어, 전북을 대한민국 창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각인시키고 유망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북창조센터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유니, ㈜아이디어파트너스 등 지역내 6개 '모두의 창업' 운영기관이 합심해 전북만의 특화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700명 규모의 '탈(脫) 사이' 플랫폼 캠프 실시

전북도는 신청서 작성이 어려워 도전을 주저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전문가가 1:1로 밀착 지원하는 '脫 사이' 플랫폼 캠프를 실시한다.

평일과 주말을 활용해 총 700명 규모로 창업 기획자와 마케터가 붙어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도전신청서'로 완성해 주며 현장 접수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북은 타 지역 예비 창업자들까지 전북 주관기관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예비 창업자들의 실질적인 도전 신청을 돕는 '탈(脫) 사이' 플랫폼 캠프는 이달부터 5월초까지 6개 운영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8일과 5월 7일 두 차례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캠프 참여를 위한 모집 공고는 이후 순차 공지되며, 세부 일정과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모두의 창업' 2단계 통과 시 '승전 축하금' 최대 500만원 추가 지급

전북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중기부 모두의 창업 2단계 오디션(지역 오디션)을 통과한 팀에게는 전북만의 승전 축하금인 '전북행 골든티켓'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해당 지원금은 사업과 자금 성격의 인센티브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중기부의 지원과 별개로 전북이 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우수 창업팀의 지역 유입 및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상금이다.

△'실패는 성공의 자산'... 전국 유일의 패자부활전 피드백 시스템

전북은 탈락자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을 펼친다.

1단계 진출자(4,000명) 중 아쉽게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의 취약점을 정밀 분석해주는 '패자부활전 피드백'을 운영한다.

이는 단순히 탈락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예정된 중기부의 추가 프로그램에 다시 도전해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정교한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이널 진출팀 위한 '파일널 터치' 및 '베이스캠프' 무상 지원

중기부 3단계(광역 오디션)를 통과한 팀에게는 최종 우승을 위한 PT 제작과 스피치 훈련 등 집중 보육 컨설팅(파일널 터치)이 제공된다.

또한, 최종 상위 10개 팀에게는 전북 창조센터 입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

는 '베이스캠프'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지역 안착을 돕는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을 선택하면 창업의 시작부터 안착까지 도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번 프로젝트에 담았다"며, "공간 조성 전이라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을 실질적인 창업 성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오는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한 줄 아이디어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1단계 선발 시 창업 활동비 200만 원이 즉시 지원된다. 또한, 우수 창업자 100여 명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과 자금이, 최종 우승자에게는 총 10억 원(상금 5억+투자 5억)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본 프로젝트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운영기관을 직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전북의 특별 지원책을 누리고자 하는 창업자들은 신청 시 전북 지역 운영기관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 꿈틀이 걸음 기부 챌린지 전개

청소년 꿈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소년 꿈 지원'을 위한 꿈틀이(Dream-Tree) 사업' 걸음 기부 챌린지를 진행한다.

'꿈틀이(Dream-Tree)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단이 기획하였으며, 신한카드가 후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후원자 모집 및 운영을 맡았다.

이번 챌린지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1인 1목표 2억 보를 달성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저소득 가정 중 예체능 및 과학, 정보기술(IT) 분야의 재능 있는 청소년 20명에게

매월 38만 원의 교육비 등을 12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 김성주 이사장과 본부 임직원이 함께 가지체 주변 선택도를 걷는 '은기 나눔 행사'를 찾았다. 이와 함께 걸음 수 상위 20명에게는 이사장 추천 도서를 증정하는 등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도 열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챌린지는 걷기를 통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 발대식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 12개사 대상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3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전북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창업아카데미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장진출 전략,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아카데미에는 모집 및 평가를 거쳐 총 12개 팀이 선정됐으며, 참가자들은 8주간 이론교육, 그룹·개별 멘토링, 현장실습, 성과발표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창업아카데미는 단순 강의 중심을 넘어 창업아이템 구체화와 시장 진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며, 주요 교육내용은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활용관리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실습 △해양수산 분야 트렌드 분석 및 판매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그룹·개별 멘토링, 전시회 참가 등 현장실습과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초기 창업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 종료 후에는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를 거쳐 우수 수료생 5인에게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망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제품·서비스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는 전북의 유망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하고 성장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의 해양수산 지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수산식품산업 고도화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사진=바이오진흥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를 비롯해 창업성장 활성화 지원, 창업아카데미 사후지원, 청년 창업자 발굴 육성, 해양수산 신제품 개발, 시장맞춤형 패키지 지원, 온·오프라인 All-line 판촉지원, 전략 고도화 컨설팅, 투자유치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

/정혜민 기자



<사진=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전문 강사 초청·사례 중심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13일 공사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 임직원 대상 적극행정 실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사가 올해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립한 적극행정 추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로,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도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 분석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이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적극행정 방해요인과 조직문화 변화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 중심의 토론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해 직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임직원 개개인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직접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직원 한 명의 적극적인 실천이 곧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전북개발공사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농진청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성과 특특

산불 예방·생산성 증대... 안전·환경·효율 동시 실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친환경 실천을 확산하는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이 농업 현장에서 안전·환경·효율을 동시에 실현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볏짚·고춧대·깻대과 과수 잔가지 등 생물성 자원을 말한다. 이를 방치하면, 자연 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농지 관리가 불편해 농가에서는 불태워 없애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처리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2024년 1월부터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철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영농부산물 파쇄와 불법소각 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쇄 품종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운영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해 3월까지 파쇄 면적만 1만 1,023헥타르(8만 7,082톤)에 달해 목표 대비 95%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 및 안전 확보 △환경 개선·자원 순환 활성화 △농업 생산성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불 예방 및 안전 확보= 산림과 맞닿은 산림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과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농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산림청이 공개한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2016~2025년)간 농산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연평균 53.6건이었으나, 사업 개시 1년 만인 2025년에는 32건으로 집계됐다.

△환경 개선·자원 순환 활성화=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때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다량 배출되지만, 파쇄하면 대기오염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파쇄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 비옥도를 높일 수 있어 농업 부



<사진=농촌진흥청>

문 자원 순환을 구현할 수 있다.

△농업 생산성 증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농지 관리가 쉽고, 다음 농작업 준비가 수월해진 다.

또한, 퇴비화로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농업 생산성 증대에도 도움을 준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효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되고, 현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 지역 농기계대사업소의 중대형 동력 파쇄기 보유 대수가 증가해 작업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4월 멸종위기 생물 '수원청개구리' 선정

농업용지 내 서식기반 마련

기후부는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수원청개구리를 선정했다. 수원청개구리는 국내 고유종으로, 서식지 감소와 환경 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하며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종이다. 특히 전체 개체 수의 10분의 1가량이 익산시 황등면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의 보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수원청개구리 보호를 위해 약 600평 규모의 서식지를 유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서식지는 농업 생산 활동과 자연 생태계 보전이 조화

를 이루는 공간으로, 멸종위기종 보호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종자사업소는 주요 국가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당하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농업용지 내 생태 서식 환경을 조성하여 수원청개구리의 안정적인 서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종자사업소 송은주 소장은 "수원청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 보호는 단순 생태 보전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사유 쓰지 말라더니” 교사 70% ‘눈치 조퇴’

전교조 “구두 보고 강요 감질” vs 교육청 “종합 판단 위한 최소 정보”

정부 예산 삭감으로 교원들이 조퇴 사유를 쓰지 않아도 됨에도, 전북 교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사유를 적거나 구두 보고를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노조는 ‘갑질’이라며 반발하지만, 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복무 관리’라며 맞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3일 도내 교사 456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진행된 ‘교원휴가 개정예규 적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올해 초 예규를 개정해 수업 등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퇴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 내용대로 사유를 쓰지 않는 교사는

28.5%(129명)에 불과했다. 반면 44%(199명)는 여전히 병원 진료 등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했고, 8%(37명)은 사유를 적지 않는 대신 관리자에게 사전 구두 결제를 강요받아 절차가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준수율이 35%로 가장 높았고 공립 중·고교 24%, 유치원 25%로 저조했다.

특히 사립 중·고교의 준수율은 16%로 최하위였다.

사립학교 교사의 56%는 서면 사유를 냈고, 19%는 구두 결제를 강요받고 있다고 답해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정 예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장 교사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이 사장이 교사 근태까지 보고받는다, “입신 확인 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 하자 관리자가 면담을 요구하며 눈치를 찌다”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정규 수업이 모두 끝난 이후 조퇴를 내는 상황까지 구두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교육청은 공문 안내에 그치

전교조는 질의서를 발송, 교육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답변 (2026.03.20)

- ‘소속 학교의 정이 인정하는’ 경우의 해석:
 - 사전에 학교의 정에게 사유를 보고하여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 아님.
- 사전 보고 강요 ❌
-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의미 해석:
 - 교육활동(수업, 상담, 급식 지도시간, 총례 등)이 없는 경우
 - 수업 교체, 직무 대리자 마련 등이 이루어진 경우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니이스에 그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 말고 유치원과 사립학교 실태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노조 측이 예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전북교육청 인사과 관계자는 “예규의 대원칙은 여전히 ‘사유 기재 후 승인’이며,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만 예외적으로 생략하는 것”이라며 “교육 활동은 수업뿐 아니라 총례, 상담,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급식 지도 등 전반을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퇴 승인 시 지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구두 보고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불가피하며, 설문 결과만으로 별도 감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최성민 기자

이남호 ‘교육 전문직역 혁신 공약’ 발표

연구 안식년 도입 등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 전문직역(장학관·장학사 등)의 기능을 행정 중심에서 학교 지원 및 컨설팅 중심으로 재편하는 ‘교육 전문직역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모든 공문과 신규 사업 추진 시 ‘학교 업무영향 분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행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직역의 성과평가 기준도 문서 생산량 대신 학교 만족도와 학력 개선 여부로 전환한다.

또한 교육감 직속 ‘전문직역 정책 협의회’를 신설하고 제안된 정책에 대한 공식 회신제를 도입한다. 장기근속자가 정책 연구에 집중할 수



이남호 예비후보

있는 ‘연구 안식년제’를 신설하며, 교육과정·디지털 등 분야별 전문인사 트랙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직역의 현장 지원 역할도 개편된다. 학교별 학습 위험군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회복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다문화·위기 학생을 돕기 위해 지자체 및 복지기관을 연결하는 전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청 전문직역의 역할을 행정 관료가 아닌 교육 전문가로 회복시켜 교실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학교업무지원센터, 업무 지원 만족도 4.53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올해 1분기(1~3월) 업무 지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53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기간 센터의 행정 지원을 받은 전주 관내 학교 교장, 교사, 행정직원 등 2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주요 만족 요인으로 업무 부담 경감, 신속한 업무 처리

등을 꼽았다. 현재 전주 학교업무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의 신학기 기간제 교원 채용, 교실 재배치, 교육환경 정비 등 총 26개 분야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조성훈 전주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일본 K-관광 로드쇼’ 참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일본 관광시장을 겨냥한 현장 홍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2026 일본지역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전북 관광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오사카와 도쿄에서 진행된 B2B 상담회와 도쿄 B2C 소비자 행사로 구성됐으며, 약 3만 명 이상의 현지 소비자와 관광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특히 오사카·도쿄 B2B 상담회에서는 일본 현지 여행사들과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전북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북 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반응과 함께, 실제 송객을 준비 중인 여행사들과의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져 향후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였다.

오사카·도쿄 B2B 상담회에서는 전주 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참여해 일본 현지

여행사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하며 광역-기초 협력 기반의 공동 마케팅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 관광 콘텐츠의 상품화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송객을 준비 중인 여행사들과의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도쿄에서 열린 B2C 행사에서는 전북 관광의 주요 매력을 직접 소개하며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현장에서는 SNS 팔로우 이벤트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냈고, 자연스럽게 온라인 확산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일본 현지 관광업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군산북페어’ 8월 개최... 역대 최대 규모 참가사 모집

8월 28~30일 개최... 20일까지 참가사 모집

군산시가 오는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군산북페어 2026’의 공식 일정을 확정하고, 행사를 함께 만들어갈 참가사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북페어 2026’은 군산시민문화회관(군산회관)과 군산관광명소 중 한 곳

을 연계하여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도 2일간 116개 부스(140팀)운영에서 올해는 3일간 180개 부스로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창작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출판사, 서점, 작가, 개인 제작자 등 창의적인 출판 활동을 하는 팀이나 창작자이다.

참가 신청방법은 군산북페어 웹사이트(gsbf.kr)에서 신청 폼을 작성하여 제

출하면 되며, 최종 참가 확정자에게는 5월 중 개별 연락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군산북페어 2025’는 방문객 9,800명을 기록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방문객 중 MZ세대(10대~30대) 비중이 71%를 기록했으며, 타지역 방문객이 70%를 차지하는 등 단순한 지역도 서전을 넘어 전국 단위의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지난해 뜨거운 성원을 동력 삼아, 올해는 군산이

라는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서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단순히 책을 소비하는 행사를 넘어 책을 매개로 군산의 정취와 깊이 교감하는 이번 여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북페어 웹사이트(gsbf.kr) 또는 인스타그램(@gsb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gsbf.kr@gmail.com 및 군산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학사모 임원회의 개최... “명산 만들기 최선”

학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학사모) 임원회의가 지난 10일 오후 5시 전주 시 평화동 허브보석사우나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3월 17~27일까지 학산공원과 캠페인 ‘학산을 알자’인문학 강좌 강사 9명에 대한 감사와 학사모 회원들의 단합된 응징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또 오는 5월 1일 개최하는 학사모와 함께하는 길 위의 인문학자 신정일 향토사학자와 학사문화탐방에 학사모 회원 및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

연구 회장은 “푸짐한 경품도 준비하고 신정일 향토사학자와 학산 탐방을 하며 학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자”며 “행정에도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우리 국민들이 찾는 명산 만들기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학산을 알자 강사의 학산에 대한 관심과 동참의 계기가 되었다”며 “학산을 국민들의 쉼터와 힐링의 명산이 되는데 동참하자”고 약속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학사모>

함께 실천해요! 환경보호!

1회용품 사용자제

플라스틱용기, 포크, 젓가락 등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줄이기

음식 포장지 등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기

에너지 절약 실천

전기절약 장치사용, 에어컨 적정 온도 유지하기

녹색생활 습관개선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익산시 “이륜자동차 2년마다 정기검사 받으세요”

익산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검사문화 정착에 나섰다.

익산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경과하면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 만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 3일이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가산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정기검사 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사전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청년들 청년 문화관광 협력 본격화

(재)군산문화관광재단과 군산시 청년들이 군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 협력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양 기관은 군산 지역 청년과 창업자들의 문화·관광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난 1일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계 사업 발굴과 운영 방안 마련 등 실행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군산문화관광재단이 보유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청년들의 청년·창업가 네트워크를 연계해 △전문인력 교류 △공간·시설·장비 공유 △청년 창업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사업 기획 등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청년 정착 기반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청년들이 지역 문화를 향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초산동 ‘아쿠르트 매니저’와 고립은둔 청장년 고립 해소

정읍시 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내 고립·은둔 청장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최근 한국아쿠르트 정읍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건강검료 지원과 안부 확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관계 단절과 외부 활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장년 1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아쿠르트 정읍점 매니저들이 정기적으로 대상 가정을 방문해 건강검료를 전달하는 동시에 생활 상태를 살피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와 즉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자의 고립감을 완화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손영아 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한국아쿠르트 정읍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작은 관심이지만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 공직자, 전략 논의 왕궁 복원 등 428건 1조 규모 사업 제시

익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뭉쳐 전방위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맞춰, 익산시의 중점 사업들이 정부안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익산시가 목표하는 국가예산은 총 428건, 1조 1,010억 원 규모다. 이

는 지난해 확보액보다 444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신규 사업 41건(630억 원)과 계속 사업 387건(1조 48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예산 전문가를 초빙해 정부 예산 편성 전략에 대한 특강을 듣고, 각 국별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를 직접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찾아 옛 왕궁 축사 밀집 지역의 생태를 되살리는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는 생태복원을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 관광자원 개발까지 기대되는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이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익산시

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동물웰스케어 클러스터’의 4단계 사업 ‘동물용 의약품 바이오파토리 구축’을 설명하며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문에서는 인공지능(AI)과 홀로그램을 결합한 ‘가상 융합 기반 AX 기업 사업화 확산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적극 요청했다.

앞으로 시는 5월 말 부처 단계부터 정부안 단계(6~8월), 국회 심의 단계(9~11월)까지 지역 국회의원, 전북자치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회의는 익산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 없이 달리지 않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익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뭉쳐 값진 결실을 맺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금지’

오는 24일부터 시행... 3주간 합동점검 및 단속

군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

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궤련은 물론,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제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휴먼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강화된 담배 규제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조성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고유가 대비 주유소 현장 점검

전담반 편성 가격 안정화 참여 지도

정읍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관내 6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물가 안정 계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8일부터 향후 유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전반의 물가 안정 및 유통 질서 실태를 촘촘하게 살피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전담반이 주유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격 표시제 등 법적 의무 사항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동시에, 고유가 상황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안정화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점검 결과 가격 표시 미흡 등 경미한



정읍시 관계자들이 주유소 현장점검을 펼치고 있다

<사진=정읍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운영자분들도 경영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투명한

운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민간 1호’ 탄생

창업 → 육성 → 자립 선순환 육성 모델 완성

군산시가 글로벌 K-푸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서 첫 민간 준공 업체가 탄생했다.

군산시는 단지 내 입주 예정인 11개 기업 중 가장 간편식(HMR) 전문 기업인 ‘하우당(대표 김순벤)’이 가장 먼저 공장 건립을 완료하고 준공했다고 밝혔다. ‘△인큐베이팅’ 결실 거점단지 거쳐 새만금 스마트 공장으

로 이번 하우당의 1호 준공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 위축됐던 군산 수산산업이 고부가가치 가공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2015년 준공된 해양동 수산물가공거점단지는 HACCP 인증 기반의 아파트형 가공공장으로 자본과 공간이 부족

한 중소기업들의 창업인큐베이터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우당은 2018년 이곳에 처음 동지를 틀 당시 연 매출액이 700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였으나, 시의 인프라 지원과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는 연매출 수십억 원의 내실 있는 수출기업으로 급성장했다.

거점단지에서 체급을 키운 하우당이 이번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단지에서 독자적인 새만금 공장을 준공한 것은 ‘창업 → 육성 → 자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육성 모델의 완성을 의미한다.

새롭게 문을 연 하우당 새만금 공장은 최첨단 위생 설비를 바탕으로 휴어, 아귀, 꽃게, 갑오징어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HMR(가정 간편식) 제품을 집중 생산한다. 이를 통해 기존 원물 중심의 수산업 구조를 가공 중심으로 전환, 미국·일본·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우당 김순벤 대표는 “군산시와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새만금

단지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며 “군산 바다의 신선함을 담은 수산식품으로 전 세계에 군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활성화 가속화 전망

하우당이 ‘민간 1호 준공’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함께 입주를 준비 중인 풀무원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기업의 공장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해수공급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2027년 7월 준공 예정인 ‘공공형 스마트 수산가공센터’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하우당의 첫 준공은 군산 수산산업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어업인과 입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2026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모집

내달 13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2026년 군산형 유망강소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한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장을 돕는 군산시의 대표적인 기업 육성 정책이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기업 중 △창업 3년 이상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매출액 6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체다. 시는 내실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강소기업’ 3개 사와 기존 졸업 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한 ‘강소기업’ 1개 사를 각각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등 맞춤형 사업비로 3년간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강소기업에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비용 등으로 1년간 3,000만 원이 지원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군산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그동안 참여 기업들의 공장 증설, 코스닥 상장,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산업의 허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신청은 오는 5월 13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신성장산업과 또는 전북산학융합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청소년수련관-글로벌학산고, 진로 교육 협력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정읍시 청소년수련관과 글로벌학산고등학교가 지난 10일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

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폭넓은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진로 체험을 비롯해 춤(댄스), 밴드, 영상 미디어 등 동아리 활동과 요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관내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청년친화도시 만든다

청년희망 네트워크 위원 모집

익산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들의 정책 제안 및 시정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청년 주도의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제4기 청년희망 네트워크위원을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청년희망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에 직접 제안하는 청년 주도의 참여 기구다. 시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의 내실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총 21명으로,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18~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위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청년층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에도 앞장서며, 청년 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이끄는 교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 동기와 활동 의지, 지역사회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 네트워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및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해경 ‘대국민 수상안전 체험행사’ 성료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 훈)는 지난 11일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물빛광장과 호수 일원에서 개최된 제11회 대국민 수상안전 체험행사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북부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소방서 등 총 1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구현하고, 해양 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찾은 시민들은 슬라이드 이용 탈출, 구명뗏목 생존요령, RIB 보트 승선 등 실제 구조대원들의 임무

를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체험 부스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오후에 진행된 인명구조 훈련 시연에서는 드론, 동력구조보트, 카약을 비롯한 구조협회 소속 RIB보트 등을 동원한 입체적인 수상구조 작전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오 훈 군산해경서장은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안전한 해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고창, 행정 신뢰도 입증 2(題)

부안군, 공약이행평가 최고 등급

부안군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24년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25년과 2026년까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공약 이행의 신뢰도와 행정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올해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완료율은 70.42%

로 집계됐다.군은 지난해 말 기준 자체 점검에서 민선 8기 80개 세부 공약사업 가운데 완료 및 완료 계속 70건을 기록해 공약 이행률 87.5%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기초단체장 평균 공약 이행 완료율보다 17.08%포인트 높은 수치로 군의 공약 추진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군 관계자는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과 공약 이행률 87.5%는 군민과의 약속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흔들림 없이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남은 공약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공약이행평가 ‘우수’

고창군이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6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으며, 평가항목은 △공약이행도 △2025년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고창군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85점 이상을 기록하며 우수(A) 등급을 받으며, 이로써 민선8기 출범 이후 시행된 네 차례의 공약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유지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동시에 입증했다. 민선8기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위해 80개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이행 후 계속추진 포함) 65건, 정상 추진 15건으로 9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어르신 3대 보건 의료정책 △소상공인 용자 지원 확대 등 군민 체감형 사업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결과는 공직자와 30명의 군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이 함께 노력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인 결과”라며 “단순히 공약사업 완료에 그치지 않고, 80개의 공약이 고창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도서관, 도서관주간 행사 ‘풍성’

독서문화 확산 나서

고창군도서관이 제62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선포식’을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독서문화 확산에 나선다.

먼저, 오는 16일 고창황윤석도서관에서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선포식’이 열린다.

올해의 책 선포와 함께 분야별 선정 도서 낭독이 진행되며, 청소년 부문 선정작 ‘늘지의 렌’의 최상희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고창황윤석도서관에서는 ‘한 줄로 채우는 책 읽는 고창’, ‘손으로 남기는 올해의 책’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독서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특강으로는 그림책 ‘안녕! 작은 꿈’의 정호선 작가와의 만남이 마련되며, 고창군립성호도서관에서는 ‘너와 나, 우리’, ‘도서관으로 ON 숲’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돼 연령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독서활동이 펼쳐진다.

또한 도서 대출 권수를 확대하고 대출정지 해제 이벤트도 진행된다.

고미숙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올해의 책을 통해 군민이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도서관주간을 계기로 도서관이 더욱 친숙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다가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전북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평생학습 기반 구축

부안군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2026년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대학이 협력해 운영하는 대표 평생교육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을 통한 삶의 변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부안캠퍼스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되며 총 25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공통과정과 지역특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은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시사·디지털·생활법률 등 시민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공통과정과 농기계 면허 취득·전기기능사·용접 등 직업 실무교육, 부안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인문·지역특화 과정, 건강·웰니스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교육 등 총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수강생 모집은 오늘부터 프로그램별 운영시기에 따라 다르게 모집할 계획이며 부안군민을 포함한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헤아림 치매가족교실 운영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0일부터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헤아림 치매가족교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헤아림 치매가족교실’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총 8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며,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의 위험요인 및 정신행동증상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가족의 자기돌봄 등 치매 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공예·원예·신체활동 놀이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참여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내소사, 국가유산 보호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부안군은 내소사에서 지난 10일 산불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내소사, 부안소방서, 부안군청, 변산반도국립공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과 협업체계를 점검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옥외소화전 및 방수총 사용 교육·훈련, 동산문화유산 이동 및 분산대피 훈련 등으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지위소방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내소사 관계자는 “소중한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제13회 부안마실축제 준비 ‘속도’

교통·안전·환경 관리 등 주요 분야 집중 점검

부안군은 제13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3일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오는 28일 예정된 최종 현장보고회에 앞서 축제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안전·환경 관리 등 주요 분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

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올해 부안마실축제는 ‘일상이 특별해지는 5월의 선물’을 주제로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13개 읍·면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를 비롯해 ‘제4회 마마스앤파파스 뮤직페스티벌’, 가수 황가람과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어린이 심어롱쇼 뽀로로’, ‘꿈의 뮤지컬 갈라쇼’ 등이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피프티피프티, 임창정, 예능, 안성훈, 진성 등 화려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개·페막 공연이 더해져 축제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군은 축제 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할 것에 대비해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안전 관리와 교통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행사장 주변 환경 정비와 각종 편의시설 점검을 통해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복분자 수매체계 개편

일원화된 공급체계 구축 농산물 경쟁력 강화

고창군이 2026년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출하약정 시행 △우선지급금 지급방식 도입 △등급별 수매제 등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편은 복분자의 일원화된 원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매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수매장려금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거주하며 생산한 복분자를 지역 농협을 통해 출하약정을 80%를 이행한 농가이며, 수매 물량 및 기준에 따라 kg당 1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우선지급금 지급 방식도 도입된다. 수매 완료 후 kg당 1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복분자 수매가격이 확정되면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복분자 가격 격차에 따른 불안정을 최소화한다.

또한 생산 전 단계에서 농가와 농협 간 사전 출하약정을 통해 수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급별 수매를 시행해 품질 기준에 따라 수매 가격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생산-수매-유통 전 단계가 연계된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용진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은 “출하약정, 우선지급, 등급별 수매라는 세 가지 핵심 제도 도입으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분자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중동사태’ 농업 분야 대응 총력

농자재 공급 차질 등 현장 부담 종합 점검

김제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 및 농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업분야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과 비료, 비닐 등 농자재

공급 차질, 물류비 및 각종 경영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농업기술센터 내 5개 부서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며, 매주 1회 이상 분야별 담당 업무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가공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중동위기에 따른 현장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매주 점검을 통해 농업 현장의 수급 불안과 경영비 부담 증가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농자재 수급안정, 가격동향, 모니터링 강화,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비료·면세유·비닐·사료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봄맞이 자전거 투어’ 성료

김제시는 완연한 봄을 맞아 자전거 전용 열차인 ‘에코레일’을 이용해 방문하는 수도권 자전거 동호인 150명을 맞이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해 김제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김제역을 시작으로 두원천과 벽골제, 죽산면을 거쳐 김제의 숨은 명소를 자전거로 누비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특히, 이번 여행은 참가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두 가지 투어코스로 운영됐다. △로드 초급 코스(40km)는 김제 메

타세쿼이아길과 능재, 부거리 용기가마 등 주요 거점을 돌아보며 여유로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로드 중급 코스(58km)는 화사한 풋타일이 장관을 이루는 만경강 벚꽃길과 만경교 등을 포함해 김제의 광활한 자연경관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자전거 여행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김제를 만들기 위해 계절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군, 고유가 대응 전방위 비상체계 가동

긴급 점검회의서 분야별 대응 점검 유류비 상승에 농가 부담 완화 집중 장기화 대비 물자수급 관리 유지

순창군이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 경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13일 조광희 순창부군수 주재로 농업, 의료, 복지, 경제, 기업 등 주요 분야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유가 상승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은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유류비 상승이 농가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우려됐던 비료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의 선제적인 예약구매를 통한 물량 확보로 무기질 비료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과다 시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가이드 안내문을 배포해 기존 조사료 비닐(7~8겹) 사용을 적정량(6겹)으로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을 확대하는 등 현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타 농산물 포장재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군은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해소와 농가 부담 완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나프타 수급 문제로 주사기와

수액세트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군은 기존 평균 사용량 기준 약 6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로 진로 분야에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쓰레기봉투 역시 현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 분야에서도 포장재 품귀현상에 따른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기업의 경영 애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물류비 지원 사업 확대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은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소상공인 '숨통'...카드수수료 지원

매출 3억 이하 최대 30만원 2개 사업체까지 중복 가능

순창군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

지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및 신청 연도 모두 순창군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인정된다. 다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접수와 함께 팩스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남원시>

남원,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36명 확정

19일부터 12일간 합숙 돌입 30일 광한루원서 본선 개최

남원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예선을 통해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36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춘향의 맛,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세계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주MBC

와 외부 전문가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가려냈다.

본선 진출자들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남원에서 합숙 훈련에 돌입한다.

한편,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은 춘제의 첫날인 오는 30일 남원시 광한루원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진·선·미·정·숙·현 및 특별상 등 총 10개 부문의 시상이 진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공약이행 90% 돌파...4년 연속 '최우수'

종합평점 90점↑ 최고등급 획득 41개 중 29개 완료·12개 정상 추진

남원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3년 공약이행 실천계획 평가부터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4년 연속으로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기록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성실히 이행하는 지자체로 공인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

부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90여 일간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공약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선거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하였으며, 남원시는 종합 평점 9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았다.

시는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민선 8기 비전으로 정하고 6대 분야 41개 공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공약 이행률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 남원형 지역 맞춤형

자리 창출,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및 공연 확대 등 29개 공약을 완료했으며,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문화 예술의 테마 조성,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등 12개 공약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는 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에 공약 이행평가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약 이행평가단 운영과 남원시 누리집에 공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통행정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수소안전기술원 완주군 이전 완료 '산업 집적화'

정책·검사·기술 기능 한곳에 수소경제 '탄력' 현장 중심 지원

완주군 소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완주군이 국내 수소 안전 산업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수소 안전관리와 기술개발, 정책지원 등을 총괄하는 수소안전기술원은 단계적인 이전을 거쳐 최근 수소안전정책과와 수소안전검사 등 전 부서의 이전을 완료하고 총 7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완주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이전에 따라 수소용품제조시설 및 법정 검사 기능과 더불어 수소 안전 관리, 정책 수립, 국제 협력, 액화 수소 안전 기술 등 관련 업무 전반이 완주군

소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로 집적화됐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소안전기술원은 앞으로 장비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와 설명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가스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업무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의 연계에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한데 모이는 수소 산업 생태계를 지속해서 구축하고, 기반 시설 확충과 정책 지원을 통

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주기에 걸친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 나갈 방침이다.

송용환 수소산업담당관은 "수소안전기술원 이전은 완주군이 국내 수소 안전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소산업 기력 강화와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수소용품검사와 성능평가, 기업지원 및 해외인증 취득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 2025년 한 해 동안 수전해 설비 57건, 수소 추출 설비 3건, 수소 연료 전지 664건 등 총 724건의 법정 검사를 수행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 16일 개막

14개국 선수단 1,700여명 참가 주말 4개 종목 동시 진행 '볼거리'

아시아를 대표하는 롤러스포츠 종합 국제대회인 '2026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9년 차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14개국에서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특히 해외선수단 규모가 460여 명에 달해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할 전망이다.

남원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남원시체육회와 대한롤러

스포츠연맹이 주최하며, 전북 및 남원시롤러스포츠연맹이 공동 주관해 내실 있게 운영된다.

경기는 종목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하는 스피드트랙 경기가 16일부터 나흘간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폭넓게 펼쳐지며, 17일부터는 인라인 하키(6일간)와 인라인 프리스타일(3일간) 경기가 이어진다. 또한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선보이는 아티스틱 종목은 18일부터 이틀간, 박진감 넘치는 스피드로드 경기는 20일부터 이틀간 각각 치러진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주말 기간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스피드트랙, 하키, 프리스타일, 아티스틱 등 4개 종목이 각 경기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사진=남원시>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는 과거 종목별로 분산됐던 대회를 하나로 통합한 종합 국제대회의 세계적 시조로 평가받는다.

남원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그동안 축적된 대회 운영 노하우와 유지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단 안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년 마음 건강 증진' 협력체계 구축

청년센터·정신건강센터 협약 고위험군 발굴·상담 연계 지원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형욱)가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손을 잡고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청년소통망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과 청년 정책 및 지역 현안 관련 활동의 공동 기획 및 운영, 교육과 문화 교류 과정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정신 건강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을 비롯해 정신 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상담 및 치료 연계 지원 등 실질적 정신 건강 지원 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힘을 모은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과 지역 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청년 지원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으로 완주청년 종합지원센터는 청년 사업 기획, 활동 운영, 참여자 발굴, 소통망 구축 등 청년 활동 기반 조성을 담당하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 관련 활동 지원을 맡아 고위험군 대상 전문 개입과 치료 연계, 정신 건강 인식 개선 및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양 기관은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청년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형욱)가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손을 잡고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청년소통망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과 청년 정책 및 지역 현안 관련 활동의 공동 기획 및 운영, 교육과 문화 교류 과정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정신 건강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을 비롯해 정신 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상담 및 치료 연계 지원 등 실질적 정신 건강 지원 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힘을 모은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과 지역 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청년 지원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으로 완주청년 종합지원센터는 청년 사업 기획, 활동 운영, 참여자 발굴, 소통망 구축 등 청년 활동 기반 조성을 담당하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 관련 활동 지원을 맡아 고위험군 대상 전문 개입과 치료 연계, 정신 건강 인식 개선 및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양 기관은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직장인·공공기관 대상 금연이동클리닉 확대

완주군이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업체 및 공공기관의 직장인 대상 금연이동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완주군보건소는 현재 5곳의 관내 업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연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의지가 있으나 바쁜 업무로 인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에게 개별 금연 상담 및 금연 물품을 제공해 금연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금연이동 클리닉에 참여하게 되면 기초 건강검진, 일산화탄소 측정 및 흡연자 평가 등을 통해 니코틴 패치 및 금연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받게 되며 6개월간 정기적인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금연 유지에 도움을 받게 된다.

금연이동 클리닉은 금연 희망자가 10명 이상인 관내 업체 및 기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완주군보건소 금연클리닉(260-3035)로 문의하면 된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이동클리닉 운영을 통해 직장 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자산형성지원사업 1기 자립역량교육 진행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13일 남원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기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통장 가입자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장현석 과장을 초청해 평생월급 프로젝트 및 통장 사업 유지 및 해지 안내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자 맞춤 교육을 하였다.

김현욱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자산형성 가입자들의 중도 포기 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전문가 위탁 교육을 통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에게 자립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계층이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자산형성지원자 및 자활근로자들이 자활 사업 참여를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저소득층 사회보장을 더욱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홀몸어르신 '정서 돌봄' 노래·웃음 치료 7월까지 운영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신향)가 최근 구이면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노래와 웃음 치료 활동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활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과정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하며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노래 부르기, 박수 치기, 간단한 율동과 웃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 움직이며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활동 중 "오랜만에 많이 웃었다", "다음 시간이 기다려진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신향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노년 1인 가구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 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가족센터는 향후 숙뿔 체험, 한방 향기 주머니 만들기 등 건강 힐링 체험 활동도 함께 운영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 지역 농업인 대상 불용농기계 현장 경매 개최

임실군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용·관리하는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대상으로 관내 농업인들에게 현장 경매를 추진한다.

매각 농기계는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총 49대로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임실읍 봉황로 371)에서 현장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참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개찰은 해당일 오후 3시 20분에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임실군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등록 필지를 둔 농업인으로, 1인당 2대 이하로 투찰이 제한되며 대리입찰은 불가하다.

입찰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및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로 방문해야 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도시재생사업 추진 '양호'

2026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 2개 지구 '양호' 안정성·실행력 등 호평

무주군이 '2026년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광역)'에서 무주읍과 설천면 2개 지구 모두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진한 사업은 개선·보완하도록 유도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평가는 사업추진 일정 및 실적, 예산집행, 주민 참여, 거

점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무주군은 사업추진 안정성과 실행력 등에서 호평받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주민 주도의 참여 구조 정착,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시설 조성,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며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방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박은석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은 "이번 광역평가 결과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한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

민 체감도를 최우선에 두고 도시재생을 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무주읍·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2022~2026, 총사업비 432억여 원) 중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무주이용재 센터장, 설천 김지성 센터장)를 설치해 무주읍과 설천면 주민협의체 중심의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12월 15일까지 수시 모집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장수군은 관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총 50가구를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 2월 11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과, 혼인

신 후 5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이다.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으로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일 가구 기준 연 1회,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 가구도 요건을 유지하고 매년 재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

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5일까지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해당 월 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 증명자료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인구 감소와 주거비 부담이 지역 정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오수관촌농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시

'농촌 왕진버스' 사업 운영

임실군은 지난 9일 관촌면 체육문화센터에서 임실군과 농협중앙회, 오수관촌농협이 함께한 가운데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운영된 왕진버스는 한방진료(원광대학교 한방병원), 구강검진 및 교육(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시력검사와 돋보기 지원(더스토리 안경원)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약 25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현장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으며 높은 호응을 나타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의료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지역의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도농 간 상생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점



임실군은 지난 9일 관촌면 체육문화센터에서 임실군과 농협중앙회, 오수관촌농협이 함께한 가운데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사진=임실군>

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확대를 통해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

겠다"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 지역인 농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주요 국가유산 유적지 현장점검

육십령고개고분군 등 점검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방안 모색

장수군은 지난 10일 육십령고개, 대적골 철생산유적, 삼봉리고분군, 침령산성, 삼고리고분군, 동촌리고분군, 장수역사전시관 등 관내 주요 국가유산현장을 방문해 보존 상태와 활용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수군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이정우 부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가유산별 훼손 여부와 주변 환경 정비 상태, 안내체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육십령고개의 역사문화적 상징성과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적골 철생산유적의 보존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또한 삼봉리고분군·삼고리고분군·동촌리고분군에서는 고분군 일대 정비



상태와 안내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침령산성에서는 산성 구간의 보존 상태와 현장 접근 여건을 확인했으며, 장수역사전시관에서는 지역 국가유산 관련 전시 운영 현황과 연계 관리 사항 등을 함께 점검했다.

이정우 부군수는 "국가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토석류 방호벽 설치 2개소 선정·추진

진안군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토석류 방호벽 설치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관내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석류 유도벽(방호벽)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시 산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를 차단하여 하류 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재해 예방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2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진안군이 2개소가 포함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부귀면 거석리 산 166번지, 상전면 수동리 110-2번지(인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02,500천원으로 국비 70%가 지원된다.

사업 규모는 유도벽 설치 2개소(각각 40m, 30m)이며,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기 전인 6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 기록 또 갱신

이틀간 3만8천명 방문 전년 대비 9%증가

2026 임실옥정호 벚꽃축제가 벚꽃 만개와 맞물려 전국 각지에서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리며 대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총 3만8천여명이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3만 5천여명에서 3천여명이 증가, 9%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출렁다리 개통 이후 열린 벚꽃 축제 개최 이래 가장 많은 기록이다.

또한,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 봉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유료 입장객도 크게 늘었다. 첫날인 11일에는 5천700여명, 둘째날 12일에는 7천400여명 등 총1만3000여명이 입장했으며, 이에 따른 입장수입만 약 4천만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축제장 내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등 운영매출 또한 호조를 보였다.

치즈볼, 젤라또 등 트렌디한 메뉴를 앞세운 먹거리 부스는 방문객들의 큰 호응 속에 완판 행진을 이어갔으며, 임실N치즈 및 유제품 판매 부스 역시 문전성시를 이루며 지역 농가 수익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같은 성공 배경에는 성공 배경에는 지난 해 벚꽃이 피기 전 열렸던 것과는 달리 벚꽃이 만개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해 축제 날짜를 잡은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홍보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방송과 언론, sns 등을 통한 사전 홍보와 현장홍보까지 더해지며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색적이면서 짜임새 있는 공연과 체험, 참여형 콘텐츠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입소문으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이종섭 의원 등 7명 위원 위촉장 수여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3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선임된 7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이종섭 의원을 대표위원, 한국희 의원을 위원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양승문, 이종성, 정화선, 차주호, 최재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5일간 장수군수가 작성

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며, 장수군의회는 추후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9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한주 의장은 위촉식에서 "군민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군의 재정이 더욱 건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영농현장 투입

농가 인력난 해소 기대

무주군이 13일부터 필리핀 출신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41명을 6개 읍면 영농현장에 본격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내 사과 과원을 비롯해 시설하우스, 복분자·블루베리 농장 등지에서 11월까지 꽃·열매수확·수확 작업을 하게 된다.

무주군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주·구전동농협과 협력하며 계절근로 사업 예산 관리와 정산, 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

정책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영농현장에 투입돼 농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작업 이해도를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안성진원마을과 구전동에 있는 공동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농작업뿐 아니라 숙소와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본격 추진

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장수군은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지역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모바일 앱을 활용해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참여자에게 비대면 맞춤형 건강 상담과 생활 실천 과제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초기검진을 실시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혈압·혈당·체중 등 주요 건강지표를 수시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받게 된다.

박정숙 보건사업과장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사업 운영 결과 참여자 다수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 주요 건강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전체 참여자의 63.3%는 1개 이상의 건강행태가 개선되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34점을 기록하는 등 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최진수 기자



군산 옥도면지사협, 고령층 대상 건강안심꾸러미 지원사업 실시

군산시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기운, 공공위원장 전재인)는 13일 고령층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상 속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 고령층 40세대를 대상으로 240만원 상당의 건강안심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안심꾸러미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구급함을 비롯해 기본적인 건강관리 물품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기운 민간위원장은 "이번 건강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건강할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김제 부량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진행

김제시 부량면 행정복지센터는 13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5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제아동권리 전문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를 주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아동의 권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존중받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량면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미스춘향 봉사단 '예음회', 어르신들께 도시락 나눔

춘향 '자·덕·체 정신' 계승

미스춘향 봉사단 '예음회'가 청년 비영리 단체 코리아레거시커미티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예음회'는 미스춘향 출신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한국 전통 서사 '춘향전' 속 인물 춘향이 보여준 절개와 신의,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와 책임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활동을 진행한 코리아레거시커미티는 한국의 빈곤·독거 어르신들의 '한 끼' 문제 해결

을 위해 10년째 활동해온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매주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끼니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 같은 코리아레거시커미티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예음회'가 함께하며,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사회참여를 연결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미스춘향 출신 봉사단원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유주방 '레거시 키친'에서 직접 식재료를 손질하고 약 250인분의 도시락을 제작한 뒤, 저소득층 노인 가구 및 복지시설



에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직접 조리과 전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봉사의 진정성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희망의샘안전봉사대 '사랑앓 잔치국수 나눔' 봉사 펼쳐

전주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이 펼쳐져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희망의샘 안전봉사대(이사장 유춘연)는 지난 11일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랑앓 잔치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과 노숙동 전사미를 일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해 마련됐으며, 봉사대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까지 도맡았다.

봉사자들은 정성껏 우려낸 육수와 신선한 재료로 잔치국수 150인분을 준비하고, 과일을 함께 제공하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다.

/정혜민 기자

완주 이서면-전주혁신 로타리, 취약가구 환경개선 봉사

주거 공간 청소 활동 진행

완주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체가 전주혁신로타리클럽과 협력해 지난 12일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당 가구는 스스로 주거 공간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가구가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긴급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활동에는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전주혁신로타리클럽 회원, 이서면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정리 및 청소를 진행하며 대상자가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전택공 공동위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인석 (유)만성산업 대표, 순창군에 성금 기탁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13일 (유)만성산업 전인석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모래, 자갈, 산림 골재 채취 및 혼합골재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유)만성산업을 운영 중인 전인석 대표는 평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아 이번 기부뿐만 아니라 장학금 기탁 등 다

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인석 대표는 "순창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임실 오수면지사협, 제빵 나눔 행사 개최

임실군 오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윤미, 박세근)는 지난 8일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독거 노인을 위한 '사랑앓 영양음료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윤미 오수면장, 박세근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등 20명이 참여해 직접 빵을 만들고 영양음료를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아동, 노인들의 영양

과 정서 지원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오수면 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 노인복지센터 2개소 및 지역 내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약 1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후원금을 활용 재료 구입부터 제빵까지 직접 참여하며 대상자들에게 신선한 간식과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알림] ■

▲ 최의호 전북타임스 기자
차남 최경빈 군 결혼
(신부 이동형 장녀 이소연 양)

장소 :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메리포ئم웨딩홀 B1 메이에르홀
일자 :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합시다.

남부시장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청년몰'과 '야시장'으로 특히 유명한 전주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신중양시장 & 모래내 시장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신선한제철 식재료와 정겨운 시장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독자투고

차량 털이범으로부터 내 차를 보호하자



자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교통사고, 무단히 운전, 음주 운전 등 차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다. 그리고 차량 털이 범죄도 많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차는 마치 자신의 일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물건이다. 이렇게 자동차가 많다 보니 차를 도난당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차량 털이범이 주변에 주차된 차를 보고 안에 있는 물건이나 현금을 절취하려고 차 유리창을 깨거나 잠겨있지 않은 차량, 잠시 일을 보

기 위해 시동을 걸어 둔 채로 정차해 둔 차량의 물건 및 현금을 순식간에 가져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우범지역을 설정,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하고 있으며 곳곳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부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량 털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해줘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차량 털이범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노리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유리창은 물론이고 문도 꼭 잠그고 주차를 해야 하며, 잠시 차를 정차할

경우에도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차량을 잠가야 한다. 또한 차량을 주차할 경우 인적이 드문 길 가장자리가 아닌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예방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차량 내에 가방이나 의류 또는 현금, 상품권 등 귀중품을 절대 놔두지 말고, 탈·부착 네비게이션의 경우에도 탈·부착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주차 시에는 탈착하는 게 좋다. 우리 스스로가 범죄예방에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인다면 소중한 내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이진재

오늘의시

꽃 /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인 약력: 1922년 경남 통영 출생.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했다. 1946년에 시 '애가'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61년 경북대와 영남대 국 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시인 과 평론가로서 활동했다. 1948년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 출간을 시작으로 '산악(山嶽)', '꽃을 위한 서시' '부 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등을 발표했다. 1958년에 한국시인협회상, 1959년에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一事一言〉

'실패한 전쟁' 후폭풍 예고...한국엔 위기이자 기회(1)



김종대 국방전문가전 국회의원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동의 국지전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패권의 작동 방식이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를 재촉하는 계기다. 이번 전쟁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는 이미 값비싼 실패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그 후폭풍은 곧 한국에 도달한다.

미국 해군은 명목상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3월 기준으로 복수의 항공모함 중이어서 즉시 가용한 전력은 그보다 적다. 펄시에는 정비·유지보수 중인 항공모함 3~4척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동에 파견된 에이브러햄 링컨, 제럴드 포드, 조지 H.W. 부시 등 3개 항공모함은 현재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모함은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다.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함재기, 보급망이 하나로 결합된 이동식 전쟁체계다. 이 규모의 집중은 곧 다른 전구의 공백을 의미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와 북한 억제에 계속 말하더라도, 실제 자산 배치에서는 중동이 인도-태평양을 잠식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계속되는 한 당분간 이 지역에서는 미국의 항모를 구경하기조차 어렵다는 뜻이다.

더 구조적인 문제는 정밀유도무기의 소모 속도다. 이번 이란전과 그 직전의 홍해·예멘 작전을 합산하면 미국의 탄약 소비는 이미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CBS는 2025년 6월 이후 미국이 여러 전구에서 사용한 토마호크가 1000발에 근접한다고 전했다. 외교정책연구소(FPRI)는 이란전 개전 후 96시간 동안 미국 주도 전력 5197발의 각종 탄약을 소비했다고 분석했다. 미 국제전략연구센터(CSIS)는 개전 후 3주 만에 미군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800발 소비하였는데, 이 숫자는 1991년의 사막의 폭풍작전이나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사용한 숫자를 넘어선다. 토마호크 한 발의 단가는 약 220만 달러, 대함형은 41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가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 속도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RTX)는 2026년 2월에야 토마호크 생산을 연 1000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대로라도 당분간 미군은 토마호크 재고량이 고갈되는 구간을 피할 수 없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을 연 1900발 이상, 대공 요격미사일(SM-6)을 500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계획이 곧 재고는 아니다. 미국의 방산 제조 능력은 공중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탄약의 소비량을 따라 수 없다. 이

러한 '군수의 문제'를 방지하고 고강도 전쟁을 감행했다는 점은 비상식적이다. 현대전에서 병목은 발사대가 아니라 탄약창에서 먼저 발생한다. 미국이 이란에 쏟아부은 미사일은 앞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쓰일 재고와 경쟁하게 된다.

이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선행 경고다. 로이더는 미국의 이란전 소요 증가로 인해 일본이 도입하기로 한 약 400발의 토마호크 납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단지 일본 조달의 지연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동맹국 판매보다 자국 전구 수요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냉혹한 선례다. 미국이 "동맹을 지킨다"고 말하더라도, 탄약 재고가 부족하면 그 약속은 즉시 선적 순번의 문제로 바뀐다. 군사동맹의 실체는 가치 선언이 아니라 물량에 있다.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닥칠 충격도 만만치 않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6개 발사대가 모두 중동으로 반출된 것이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의혹 덮고 갈등 키운 경선...민주당 통합리더십 실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우여곡절 끝에 이원택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그 여진은 외려 더 거세지고 있다. 대리기사비 대남 의혹으로 촉발된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식비 대남'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성급한 무혐의 판단, 경선 득표를 유출 논란까지 겹치며 당내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경선에서 패한 안호영 후보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은 단순한 패배 불복 차원을 넘어선 문제 제기로 읽힌다. 핵심은 '제3자 식비대남' 의혹에 대한 재검찰 요구다. 경찰과 선관위의 조사까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당이 단 하루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성

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전북도당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윤준병 위원장이 SNS에 '49.5 대 50.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경선 관리 책임자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비공개가 원칙인 득표율을 사실상 공개함으로써 규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패배한 측의 반발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후보 간 경쟁이 아니라, 당이 스스로 공정한 관리 능력과 내부 통합 역량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데 있다. 계파 논리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해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특히 본선을 앞두

고 무소속 변수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내부 분열은 곧장 선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명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쇄신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 수사와 별개로 당 차원의 재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경선 관리 과정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지도부는 경솔한 언행으로 혼란을 키운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심 앞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전북 민심은 지금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을 묻고 있다. 민주당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선의 상처는 본선까지 이어지는 치명적인 균열로 남게 될 것이다.

문화재 열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국보 제62호)

-분류 - 유적건조물, 불전
-지정일 - 1962년 12월 2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금산사 (금산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말린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8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2258-3734	부안지국 010-2258-3734
중양지사 010-8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8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기사제보-063)282-9600~3

“시민과 함께 답을 찾다”

김제시, 현장 중심 소통 행정 빛나

김제시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선8기 김제시는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형식적인 보고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소통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다.

(편집자주)



시민과 토크(Talk Talk), 김제시 소통의 날 운영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이다. 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내 1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직접 마주 앉아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나머지 6개 읍면동 일정은 관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하는 등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루 두 곳씩 현장을 찾은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정 주요 방향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을 펼쳤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거나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민과 행정 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이번 소통의 날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건의 사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 눈길을 끈다.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정책 반영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책임 행정'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소통의 날·열린시장실 운영 등 시민과의 접점 확대하는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

이 과정에서 시는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도시가스 공급사업 향후계획 △기초생활급여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 지원 계획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과속 단속 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 △주차장 확충 및 가로등

설치 △마을 내 분리수거장 설치 등 생활민원형 현안부터 지역발전 과제까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새롭게 제안된 의견 역시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다. 현장방문 역시 시민 삶과 맞닿은 곳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촌택지 가로수 정비, 월촌농공단지 도시숲 조성사업, 전통시장 민생현장 점검, 교통 민원 현장 확인 등 총 11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밀착형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돌봄 현장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공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와 후속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현장 확인-조치-관리'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더 큰 도약
이처럼 시는 ▲읍·면·동 순회 소통의 날 운영 ▲열린시장실 면담 ▲현장방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소통-반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김제형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안고원
JINAN GOWON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금선

착착 풀어가는 시민 목소리, 열린시장실 운영 및 현장행정 강화

이 같은 현장 중심 행정은 '열린시장실 운영'과 '현장방문'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동안 열린시장실에서는 총 14건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은행 등 유관기관은 물론 대한노인회, 소상공인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과의 소통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성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체계까지 연계한 점에서 소통 행정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할 수 있

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과 함께 김제의 더 큰 도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는 현장 방문과 시민 면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시정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